

학술지 편집과 전문가심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홍 성 태

대한정형외과학회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눈부신 발전을 축하합니다. 학회와 회원 모두 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의학의 중요한 분야이므로 더욱 더 큰 학문적인 기여를 기대합니다. 특히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통한 학문적인 발전은 다른 학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학술지는 특정 학문분야의 새로운 지견을 연구하여 작성한 논문을 모아서 출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출판물을 매개로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학술교류를 하며 전문 분야 인력을 교육하고 또 사회적 신뢰를 구축한다.¹ 이러한 교육과 신뢰의 기능은 학술지가 좋은 논문을 공정하게 선택하고 국제 규격으로 편집하면서 꾸준히 정시에 출판하여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술지의 편집은 이제 학술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전문영역이 되었다. 즉 학회에서 역량이 있는 회원을 편집인으로 훈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학술지를 장기간 편집하도록 제도화하여야 국제적인 편집이 가능해진다. 편집인은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편집관련 국내외 학회에 가입하고 정기적인 모임과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² 동시에 학회는 편집인의 이러한 노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학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편집인의 제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학술지 발행에 관여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편집인과 발행인이 있다. 편집인은 원고의 내용과 학술지의 모양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발행인은 학술지의 재정 혹은 사업적인 내용을 책임지고 편집인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의 역량이 학술지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학술지 편집이라는 개념에 원고를 모아서 출판하는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하므로 편집인의 역량에 따라서 학술지 성격과 위상이 달라진다.

편집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원고의 선정이다. 이는 학술지 학문분야에 적합하면서 독자의 학문적인 흥미를 이끌어낼 원고를 모으거나 골라내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가심사(Peer Review)이다.³ 이 전문가심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대상 논문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며 논문 내용의 객관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전문가심사는 편집인이 논문의 핵심주제를 가장 잘 알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출판 전에 원고를 보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가심사 제도에 대하여 지나친 주관성과 심사자의 비뚤림(Bias)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시스템이 없어 널리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심사자는 전문가의 학술적인 안목으로 원고의 원저성, 창의성과 학술적 흥미, 논문으로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출판가능 여부와 수정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술지가 제시하는 기간을 준수하면서 근거와 함께 의견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심사자는 검토하는 원고의 내용이 미발표자료임을 명심하고 그 내용을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기회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전공이 부적합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사양하여야 한다. 그러한 때는 신속하게 편집인에게 간단하게 사유를 설명하여 다른 심사자를 바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심사자가 편집인과 저자를 돕는 방법이다.

최근 전문가심사에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사례로 “위장심사자(Fake Reviewer)”가 국제 편집인학회에서 소개되었다.⁴ 이는 저자가 심사자로 자신이 관리하는 이메일 주소로 가공의 인물을 추천하고는 실제로 저자가 자기 논문을 심사하는 일종의 자기심사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례의 주인공이 한국인이고 대학에 재직하는 젊은 교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은 모두 35편의 논문이 취소되었고 소속 대학에서 물론 해임되는 징계를 받았다. 그 중에서 20편의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인 *Immunopathology and Immunotoxicology*는 해당 논문을 모두 취소하면서 편집인이 사임하는 일까지 생겼다.⁴ 전문가심사에서도 편집인의 책임이 엄중함을 일깨우는 사례이다.

전문가심사는 학술지에서 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학술지 편집팀이 온라인으로 전문가풀을 전공별로 구축하고 그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전문가풀을 계속 넓혀가고 또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편집인은 심사자를 잘 관리하고 예우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심사비를 지급하는 학회도 있으나 이는 국제규격이 아니므로 가급적 명예나 다른 예우를 통해 보상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집인은 또한 부적격 심사자를 골라서 심사에서 제외하는 일도 해야 한다.

최근 공개학술지(Open Access Journal)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전문가심사 체계가 생겨났다. 즉 Peer Review (PR) Cascade와 Peer Review Consortium이 그 것이다.⁵ 이들은 원고의 학술지간 자동연계 개념이다. 즉 PR Cascade는 한 학술지에 들어온 원고를 사전심사 또는 전문가심사 후에 발행인이 인용도가 낮은 동일 계열 학술지로 넘겨서 출판하는 것으로

PLOS, BMC 계열 학술지가 그 예가 된다. PR Consortium은 발행인이 다른 학술지간에 계약을 맺고 투고량이 많은 학술지가 반려하는 원고를 심사의견서와 함께 다른 학술지에 이첩하여 출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두 시스템 모두 저자와 편집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지만 편집인과 저자가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가심사 의견서는 심사자가 의뢰한 편집인에게 보내는 사신에 해당하므로 심사의견을 다른 학술지 편집인에게 넘기는 데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한 학회가 여러 학술지를 발행하는 경우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PR Cascade 예가 있지만 PR Consortium은 아직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의편집 회원 학술지간에 이러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인 역할 중에 중요한 것으로 편집권 확보(Editorship)와 연구/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의 확립이 있다. 편집권 확보는 학술지 편집에서 편집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뜻하며 물론 필수적인 권한이다. 국내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서는 학회장이나 이사장 또는 학회 원로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임용, 승진, 전문의시험 등)에 의한 강한 요청과 관행에 의해서 편집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편집인의 슬기로운 대응이 요구된다. 연구/출판윤리 위반은 일단 발생하면 편집인이 난처해진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분명하게 문서화하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여 집행하고 학회 차원에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위반 사례가 생기기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의편집의 꾸준한 노력으로 중복출판이 크게 줄어 들어서 2004년도 5.9%에서 2009년도에 1.2%로 감소한 좋은 사례가 보고되었다.⁶

학술지의 발전에 편집인의 땀과 고뇌가 토대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 채택된 원고를 출판 전에 편집인이 검토하여 편집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할 수 있는 만큼 공격적인 편집(Substantive Editing, 편집인이 원고를 많이 수정하는 편집)을 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진화하고 있다.⁷ 이는 전적으로 편집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정형외과학회를 포함하여 대부분 학회지 편집인이 전문 편집인이 아닌 현직 교수가 겸직으로 무보수 봉사하는 수준에 있어서 이러한 많은 시간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편집을 하기에는 아직 국내 학술지들이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학술지는 편집인만의 물건이 아니라 회원 모두, 그리고 해당 학문분야 전문가들 모두의 공동재산이다. 학술지 발전을 위해 회원과 전문가 모두 저자로, 심사자로, 그리고 독자로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회원들이 우리 학술지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좋은 논문을 외국 학술지보다 우리 학술지에 발표하고 우리 학술지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쌓여야 학술지가 반석에 오른다. 처음 시작이 어렵지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가속이 붙게 될 것이다. 학술지가 단기간에 확대재생산 반석에 오르기 위해서는 회원들 모두의 역량을 함께 결집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Gasparyan AY, Ayvazyan L, Kitaz GD. Biomedical journal editing: elements of success. *Croat Med J* 2011; 52: 423-8.
2. Hong ST. Lesson of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gress on Peer Review and Biomedical Publication. *J Korean Med Sci* 2013; 28: 1413-4.
3. Gasparyan AY. Peer review in scholarly biomedical journals: a few things that make a big difference. *J Korean Med Sci* 2013; 28: 970-1.
4. Retraction Watch. South Korean plant compound researcher faked email addresses to he could review his own studies. <http://retractionwatch.com/>. [accessed on February 14, 2014]
5. Kim SY, Bae CW, Hahm CK, Cho HM. Duplicate publication rate decline in Korean Medical journals. *J Korean Med Sci* 2014; 29: 172-5.
6. Barroga EF. Cascading peer review for open-access publishing. *Eur Sci Editing* 2013; 39: 90-1.
7. Gasparyan AY. Journal editing: making an impact. *Eur Sci Editing* 2013;39:58.